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박환일(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9월에 이어 10월에도 국제원자재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품목의 하락이 확대되었으며 곡물은 5개월간 지속된 하락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위축된 석유수요에 비해 공급은 여전히 활발한 상태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급가격 인하로 인해 국제석유가격 하락이 가속화되었다. 곡물은 일부 지역의 기상이 악화되었고 반발 매수세력이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에탄올시장은 9월의 급락에서 벗어나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에탄올 생산량 감소와 철도물류문제로 인해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이 상승했으며, 2014년 에탄올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1. 원자재시장 동향

■ 원자재지수 월간 동향

2014년 10월 평균 원자재지수는 전월보다 하락속도가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CRB지수(CRB Index)는 274.3을 기록하여 전월 283.1에 비해 3.1%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3.7% 하락했다.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 GSCI)는 548.8로서 전월 588.8보다 6.8% 하락, 전년 동기보다는 13.4% 하락했다.

* hipark@gtck.re.kr, 02-3393-3921.

표 1. 원자재지수의 월간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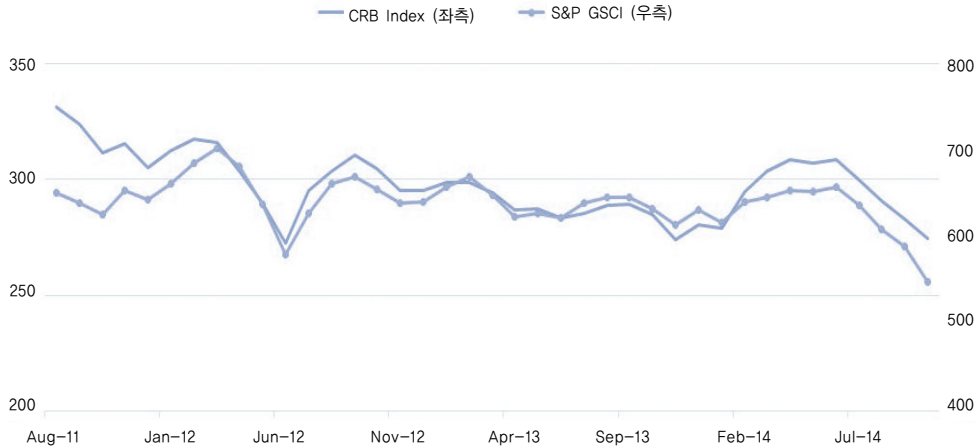
구분	2013.10	2014.9	2014.10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CRB Index	284.7	283.1	274.3	-3.7	-3.1
S&P GSCI	633.4	588.8	548.8	-13.4	-6.8

주: 변화율은 2014년 10월 평균지수의 전년동기(2013년 10월)와 전월(2014년 9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국제 원자재시장은 2014년 7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0월의 하락률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7~9월 CRB Index는 월평균 2.8% 하락했지만 10월에는 3.1% 하락했다. S&P GSCI는 7~9월 월평균 3.6% 하락한 반면 10월에는 6.8%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2014년 10월의 CRB Index는 최근 저점을 형성했던 2013년 말 및 2014년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9개월만에 270대를 기록하였다. S&P GSCI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60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2012년 6월에 기록했던 579.9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10월에 에너지품목의 하락률이 컸는데 에너지품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S&P GSCI가 강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2014년 10월 원자재시장은 수요를 초과하는 충분한 공급, 미국 달러의 지속적 강세 등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OPEC지역의 석유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석유가격 하락폭이 컸으며 미국 달러화 강세로 비철금속품목의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반면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곡물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나타냈다. 10월 중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종료 선언과 함께 초저금리 유지발언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낮아졌지만 원자재시장에 대한 투자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락흐름이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원자재지수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에너지

2014년 10월의 에너지시장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품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WTI원유의 10월 가격은 84.3달러/배럴로서 9월에 비해 9.3% 하락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6.1%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10월 가격이 88.1달러/배럴로서 전월의 98.4달러/배럴에 비해 10.4%, 전년보다 19.5% 낮은 상태를 나타냈다. WTI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80달러선까지 하락했는데, 최근 4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WTI원유는 10월 31일 80.5달러를 기록하여 80달러 붕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10	2014.9	2014.10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WTI원유	100.6	93.0	84.3	-16.1	-9.3
브렌트유	109.4	98.4	88.1	-19.5	-10.4
천연가스	3.65	3.92	3.80	4.1	-3.1

주: WTI원유(CME선물), 브렌트유(ICE선물)는 달러/배럴, 천연가스(CME선물)는 달러/백만BTU; 변화율은 2014년 10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10월)와 전월(2014년 9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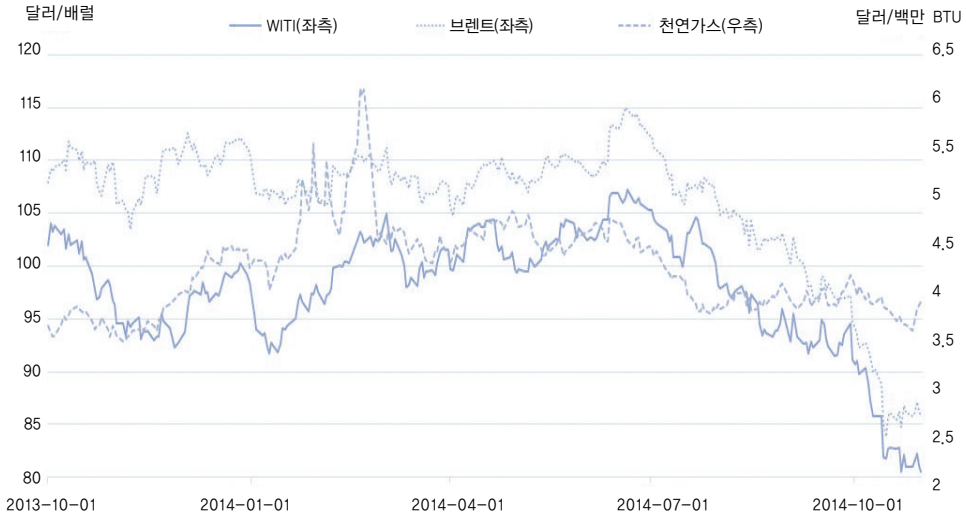
10월 석유가격이 급락한 것은 유럽과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OPEC이 감산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가격약세를 촉진하였다. 석유생산량 조절을 둘러싸고 OPEC 회원국들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판매가격을 인하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격이 배럴당 80달러까지 하락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쿠웨이트 석유부 장관은 러시아와 미국의 석유 생산비용인 76~77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수준은 OPEC이 추정하는 적정유가인 95달러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석유생산국가의 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OPEC의 감산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생산비가 높은 비전통석유, 즉 셰일오일, 심해오일, 오일샌드 등은 석유가격 하락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셰일오일의 생산비는 배럴당 최대 100달러로서 유가가 80달러를 하회하면 셰일오일 생산량은 2/3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세계석유수요는 경기불확실로 인해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 3분기 성장률은 7.3%로서 전분기 7.5%보다 둔화되었으며, 유럽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가운데 유럽경제를 지탱하던 독일의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경제는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유로존과 중국경제 부진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높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가하락이 이어지면서 석유수요전망이 하향 발표되고 있다. EIA는 2014년 석유소비량을 9,155만배럴에서 9,147만배럴로 8만배럴, 2015년 전망은 9,289만배럴에서 9,271만배럴로 18만배럴 하향 조정했다. IEA 역시 10월 보고서에서 2014년과 2015년 수요전망을 각각 21만배럴, 31만배럴 줄여서 발표하기도 했다. 향후 국제석유가격은 초과공급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OPEC의 감산여부와 겨울철 석유소비증가 정도가 가격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천연가스 가격은 3.80달러/백만Btu로서 전월보다 3.1% 하락했으며, 1년 전보다는 4.1%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9월에 잠깐 반등을 했지만 8월부터 시작된 약세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1월 이후 4달러 이상을 유지했으나 최근 3개월 연속 3달러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데 온화한 날씨 전망으로 가격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농축산물

2014년 10월 곡물시장은 5개월만에 하락세를 멈추거나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10월의 옥수수가격은 349.4센트/부셸로 전월보다 3.1% 상승, 1년 전에 비해서는 20.4% 하락했다. 대두는 964.6센트/부셸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0.7%, 전년 보다는 25.0% 하락했다. 10월의 생육우는 166.5센트/파운드로 전월에 비해 5.6% 상승했다.

표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10	2014.9	2014.10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옥수수	439.2	338.8	349.4	-20.4	3.1
대두	1,286.8	971.5	964.6	-25.0	-0.7
생육우	132.6	157.6	166.5	25.6	5.6

주: 옥수수(CME선물), 대두(CME선물)는 센트/부셸, 생육우(CME선물)는 센트/파운드: 변화율은 2014년 10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10월)와 전월(2014년 9월)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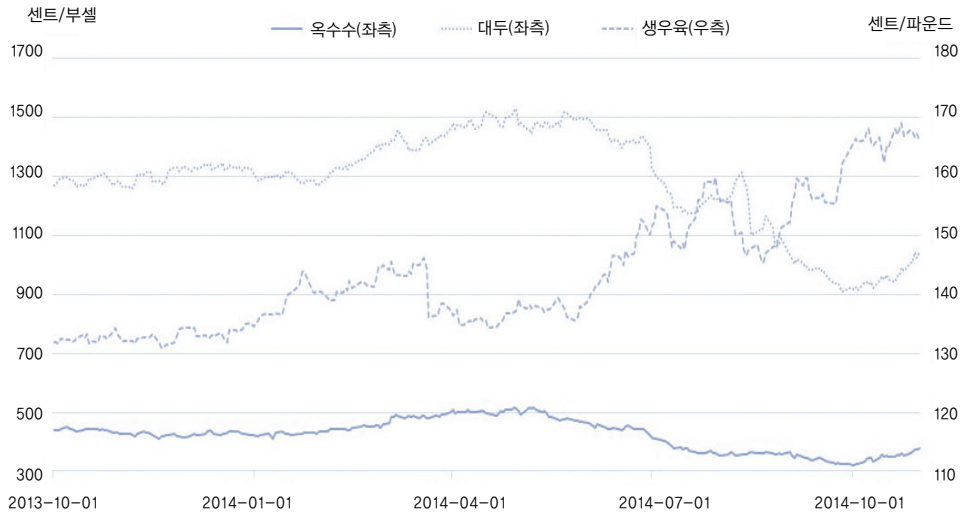
자료: KoreaPDS

10월 곡물시장은 급락세가 다소 저지가 되면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비로 인해 수확이 지연되는 가운데 매도포지션의 청산과 신규 매수가 유입되면서 하락세가 완화되었다. 10월 19일 기준 미국 옥수수 수확률은 31%로 예년의 53%에 비해 낮은 상태이며 대두 수확률도 예년 66%보다 낮은 53%를 기록했다. 하지만 10월 후반 기상상태가 개선되면서 수확진도율이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카고선물시장의 옥수수 선물계약 순매수포지션은 10월 중순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10월 말 21.8만계약까지(9월 말 15.7만 계약) 늘어났다. 대두 선물 역시 9월 말 3.8만 계약 순매도에서 10월 말 2.9만 계약 순매수로 반전되었다.

2014년 9월까지 옥수수, 대두 등 곡물가격의 하락이 커지면서 10월부터는 반등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브라질 등 주요 곡물생산지역의 기후가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곡물시장에서의 매도세력이 줄어들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곡물수급이 안정되어 있고 곡물재고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으로 추세적인 상승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생육우시장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9월에 월 평균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도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7월과 9월 파운드 당 160센트 돌파에 실패했지만 10월에 사상 처음으로 160센트를 돌파하였다. 생육우가격은 낮은 옥수수가격이 지속되면서 육우 생산비용 감소와 생산업자의 기대이익이 증가하였고 최근 미국 육우 수출이 증가하면서 강세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상최고가격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익실현 욕구가 증가하면서 추가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비철금속 및 귀금속

10월의 비철금속시장은 9월의 혼조세와 달리 모든 품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리가격은 6,640달러/톤을 기록하여 9월에 비해 2.6% 하락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8.7% 하락한 상황이다. 알루미늄은 1,990달러/톤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4.4% 하락했다. 금 10월 가격은 1,224달러/온스로서 9월보다 1.0%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7.1% 하락했다.

표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10	2014.9	2014.10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알루미늄	1,971	2,081	1,990	1.0	-4.4
구리	7,271	6,817	6,640	-8.7	-2.6
금	1,317	1,236	1,224	-7.1	-1.0

주: 알루미늄(LME선물), 구리(LME선물)는 달러/톤, 금(CME선물)은 달러/온스; 변화율은 2014년 10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10월)와 전월(2014년 9월)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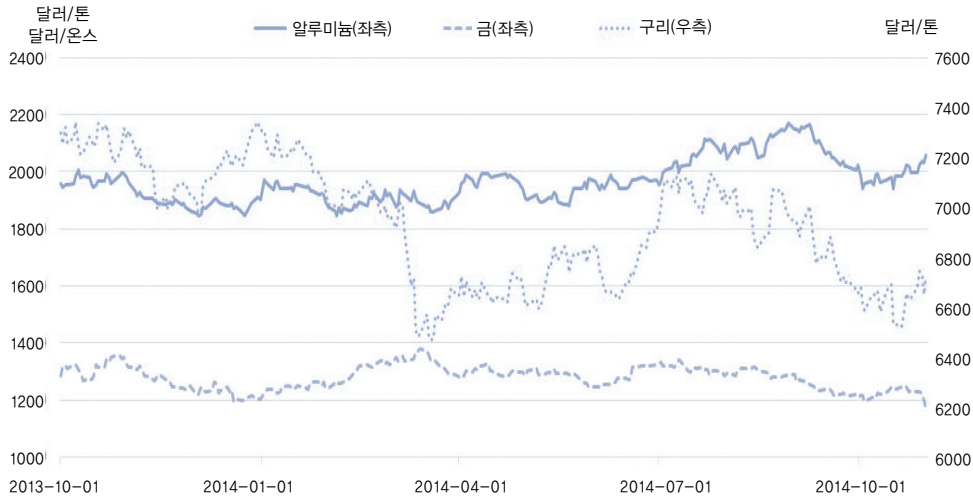
자료: KoreaPDS

비철금속시장은 글로벌 경기위축과 미국 달러화 강세 이슈가 지배하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의 10월 경기체감지수는 2013년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중으로 유로존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IMF는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3.3%로 하향 조정했으며 2015년 전망치도 3.8%로 낮추어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전망으로 구리 제조사들은 재고 비축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경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대규모의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부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지나친 침체에 빠질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4월 이후 신규 부동산 투자가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부동산 시장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알루미늄 시장은 방향을 결정지을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수급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분기에 가동이 중단되었던 중국 제련소가 가동을 재개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지만 유로존의 자동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알루미늄 수요도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중 LME 알루미늄 재고량은 450만 톤으로 201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하고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 비철금속 수요가 불투명하지만 알루미늄 생산기업들의 감산 움직임도 있는 만큼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 가격은 8월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10월 중순에 온스당 1,25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10월 하순에는 1,200달러 이하로 하락했다. 10월 평균가격인 1,224달러는 2013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 시장은 불확실한 경기전망보다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달러강세 현상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주: 알루미늄, 구리는 달러/톤, 금은 달러/온스
 자료: KoreaPDS

2. 에탄올시장 동향

■ 공급차질로 인한 가격 급등

미국 에탄올시장은 2014년 9월의 폭락에서 벗어나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2014년 10월 마지막 주 가격은 181.3센트/갤런으로 4주 전 가격인 154.9센트/갤런 대비 17.0%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0.8% 상승했다.

표 5. 에탄올 주간 평균가격변화 비교

	2013.10.28	2014.9.29	2014.10.27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에탄올	179.8	154.9	181.3	0.8	17.0

주: 에탄올(CME선물)은 센트/갤런; 변화율은 2014년 10월 마지막 주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10월 마지막 주)와 전월(2014년 9월 마지막 주)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2014년 9월 에탄올 시장은 생산량 증가와 재고량 증가로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낮은 에탄올 생산마진으로 인해 다시 에탄올 생산량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는 에탄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옥수수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자 에탄올 생산마진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에탄올 생산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에탄올시장은 약세에서 벗어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탄올 생산량 감소로 인해 재고량은 2014년 9월 26일 1,880만배럴에서 10월 24일 1,700만배럴로 180만배럴이 줄었다.

또한 미국 동부와 서부지역에서의 철도 물류문제가 발생하여 에탄올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에탄올은 동부 또는 서부에 위치한 생산공장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내륙으로 이송이 되는데 철도차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에탄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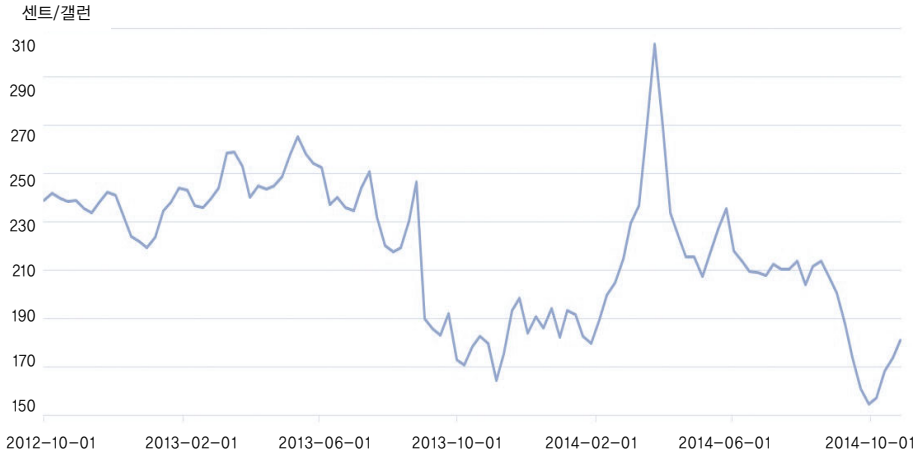
2014년 9월 이후 에탄올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에탄올생산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미국 에탄올수출은 6억1,900만갤런이었으나 2014년에는 62% 증가한 10억갤런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수출국가인 남미 뿐 아니라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풍부한 옥수수생산량을 기반으로 2015년에도 에탄올수출은 지속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표 6. 미국 에탄올 생산 및 옥수수 소비량 추이

주간	에탄올 생산량 (천 배럴/일)	에탄올 재고량 (백만 배럴)	가솔린 소비량 (천 배럴/일)	옥수수 소비량 (백만 부셀)
2014/7/25	954	18.6	9,006	14.47
2014/8/29	921	17.7	9,480	13.97
2014/9/26	881	18.8	8,660	13.36
2014/10/10	885	18.4	9,043	13.42
2014/10/17	896	17.9	8,836	13.59
2014/10/24	937	17.0	8,867	14.21
2014/10/31	929	17.2	9,162	1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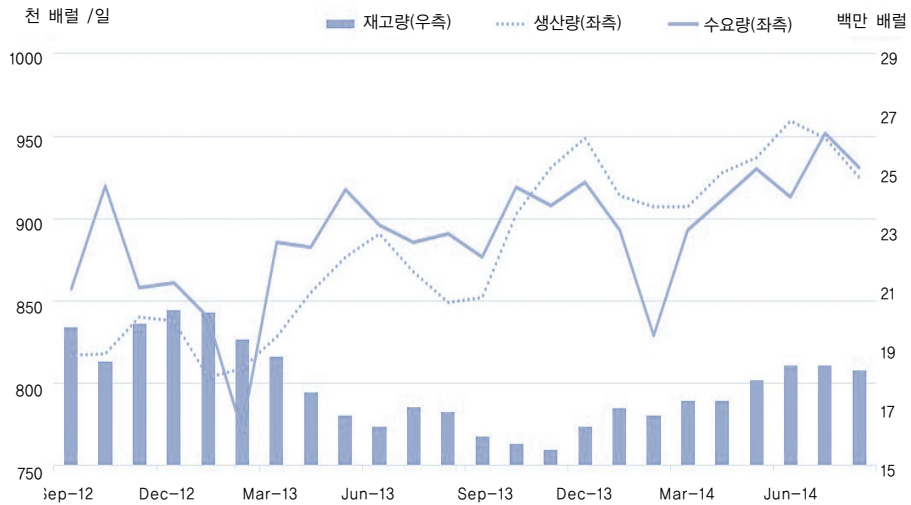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그림 5. 미국 CME 에탄올 주간가격 추이



자료: KoreaPDS

그림 6. 미국 월별 에탄올 수급 및 재고량 추이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